

소문의 서사와 불안의 주체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

우 현 주*

요약

일상에서 창조되고 유포되는 소문 서사는 대중의 혼란을 유발하는 매체 보도, 비윤리적이고 의도적인 루머나 험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의 형태로 소설과 결합하여 재탄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문의 서사가 빈번히 소설을 통어하는 박완서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연속적으로 진행될 본 연구는 '텍스트인 소문-창작자인 주체/대상인 타자-수용 및 저항 정동의 공동체'의 세 층위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 우선 텍스트인 소문과 창작자의 관계 탐색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소문의 발생과 유포 단계에서 기층 대중의 무의식적 심리에 착종된 불안의 양상과 소문서사의 발현 과정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소문서사에 의해 반영되는 사회 메커니즘과 인물의 수행적 특징 및 길항 관계를 검토하면서 박완서 소설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국민개조를 위한 감정의 기획에 복무하던 70년대 관변 잡지나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던 80년대 미디어 전략은 제도적 채널이 소문의 서사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주체의 일상에 편재함을 의미한다. 일상에 잔존한 주체의 습속은 근대적 미디어 기획과 마찰하며 전근대성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주체의 불안은 배가된다. 완벽한 대타자를 향해 스스로를 균열의 소문으로 전시하거나 비윤리적인 낙인에 앞서 상상적인 소문의 생성으로 죄책감을 은폐하려는 주체의 도착적 수행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실패로 귀결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집단 내부에서 공유되는 소문의 서사 속에서 계급적인 불안정성과 신분 상승의 제약, 권력을 향한 욕망, 상징적인 권위의 상실은 현실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며 불안을 유발한다. 박완서는 소문을 발생시키고 공유하는 집단과 그들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 사이에 작가 의식과 밀착된 중개적 인물을 설정한다. 그들은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문의 확장을 증대하고 소문 발생 집단과 거리감을 두면서 독자의 신뢰감을 높인다. 소문을 생성·공유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받는 주체는 일상의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끊임없이 벗어나려 시도하는 아이러니함으로 소문의 서사를 추동한다. 이렇듯 박완서 소설은 소문의 배경을 의심하고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길항 과정에서 사회적 균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불화의 건강성에 대해 재사유하게 한다.

주제어: 소문의 서사, 불안, 주제, 박완서, 소문의 생성, 소문의 공유

목차

1. 서론
2. 소문의 생성과 도착적 불안
3. 소문의 공유와 불안의 가시화
4. 결론

1. 서론

한국 전쟁의 파국을 넘어 생존의 복원을 위한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자본의 일상으로 재편되는 모든 과정의 서사 속에 불안은 공존한다. 박완서 소설의 「상(賞)」과 「무중(霧中)」에서는 불안한 주체들이 소문의 매체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불안을 확인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박완서 소설은 소문을 생산해

내는 공동체의 심리적 배경에 집중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자화된 개인의 불안과 현재의 심리 상태를 타자에게 대상화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

소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설 작품에서 ‘소문’의 서사구조가 소설적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 및 소문과 인물의 감응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소문의 서사는 근대/전근대의 이분법 속에서 소문이 ‘전근대적’이거나 ‘비근대적’이며 혹은 ‘비계몽적 매체’라고 보는 시각¹⁾,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을 재현하는 소설과 남성 창작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여성/남성의 대립 구도²⁾, 문자 중심적인 사유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술문화와 저항담론으로서 소문의 가치를 가늠하는 이성/비이성³⁾의 이항대립 속에서 진행되면서 근대와 젠더 관점에서 동일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대 담론 속에서 소문의 서사를 고찰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이항대립 속에서 누락되는 주변부적이고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다기한 소문의 층위를 미시사적 일상의 관점으로 포괄해 보고자 한다.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전쟁 후 정체성과 기억의 불안을 소문의 억압과 재생산으로 해소하거나(『부처님 근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권력의 욕망을 가해적 소문으로 공유하고(『마흔 아홉 살』), 돈과 성의 윤리적 우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도덕한 소문의 스캔들을 가공해 간다.(『대범한 밥상』) 일상에 편재한 불안의 여러 요소들

- 1)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67면.
- 2)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연숙, 『사적 공간의 미시권력, 소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여이연, 2004, 239면,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나해석의 단편 ‘경희’를 중심으로』, 『사이』 제7호, 2009.
- 3) 김종구, 『구술문화와 저항담론으로서의 소문: 이기영의 『고향』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호, 한국현대문학회, 2004, 366-388면.

은 모호함, 위협, 위협이라는 맥락에서 소문으로 유통되면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중을 납득시키며 유통되지만 “입증되지 않은 도구적인 정보의 진술”로 설명된다.⁴⁾ 따라서 ‘소문’에 대한 연구는 그 텍스트만이 아니라 소문의 대상, 소문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며 유포하는 대중에 대한 고찰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소문은 잠복기를 포함하는 ‘발생’ 단계 - 사회 모든 계층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유포’ 단계 -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의 형태로 돌변하는 폭력의 행사 단계인 3단계로 구성된다.⁵⁾ 소문 서사의 순차적인 분석 연구로 구성될 박완서 소설의 소문 서사 고찰 중 본 연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소문의 잠복기와 발생, 그리고 유포의 단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소문의 유포에 의한 폭력성 및 타자의 양상과 저항, 소문의 긍정성과 일상 공동체 모색은 추후 연구로 남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인 소문-창작자인 주체/희생자인 타자-수용 및 저항 정동의 공동체’의 세 층위를 설정하고 그 중 본 연구는 소문과 창작자인 주체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소문의 생성구조가 문학장 내에서 작동되는 이데올로기적 방식 및 인물의 현실 길항과 수행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상의 사회 문화가 문학 텍스트에 혼용되어 있다는 인식에 놓인 ‘소문’의 서사를 문학의 독법으로 읽어낼 예정이다. 소문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하나의 주어진 상징적 체계 사이의 관계로서”⁶⁾ 그 연관관계의 틀 속에서 의미를 갖는 문학적 구조를 지닌다. 끊임없이 자가 증식하며 변주되는 소문은 신화의 구전으로부터 현

4) Nicholas DiFonzo and Praashant Bordia, “Rumor, Gossip and Urban Legends”, *Diogenes* 213, 2007, p.20.

5)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황승환 옮김, 『소문의 역사-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세종서적, 2001, 177면, 195면 참조.

6) 위의 책, 15면.

대의 시의성 있는 화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현실과 문학의 경계를 오간다. 그러나 소문의 서사에 대한 사회 텍스트와 ‘문학’의 경계를 오가는 임계점에서 본 연구는 자칫 역사나 문화사의 지류이자 풍경으로 원경화되기 쉬운 문학의 역할을 재고하고 ‘소문’을 통해 문학의 일상성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안의 망탈리테가 집단적 기억과 만나 소문의 시학으로 퍼져 나갈 때, 소문은 주체의 불안을 표면화하는 매체가 된다. 소문의 유형은 대개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이야기들의 패턴화된 반복이다. 주체의 불안과 착종된 소문의 생성은 대중을 “일시적으로 그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정화 과정”이자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을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된다.⁷⁾ 그러나 동시에 소문은 그것으로 인해 주체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양면성을 갖는다. 소문의 ‘역할 교환 시도’⁸⁾는 수신자가 발신자가 되는 가운데 개인의 견해를 덧붙이며 서로 교감하게 한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 불안의 감각은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문의 특성에 공명하여 그 강도를 더해간다. 주체가 소문의 생성자이면서도 소문에 의해 포획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소문과 불안의 이러한 영향관계에 기인한다. 소문과 불안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일상에서 불안의 근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레나타 살레츨에 의하면 현대의 불안은 사회적 역할, 정체성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신이나 국가의 부재와 같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본보기의 부재에 더 영향을 받는다.⁹⁾ 프로이트와 라캉의 ‘불안’ 이론을 경유하며 그의 이론은 심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체 내부에 일어나는 불안의 심리를 해석하는 데 참조점을 준다. 그는

7) 위의 책, 67면.

8) 위의 책, 206면.

9) 레나타 살레츨, 박광효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2015, 23면.

불안을 대하는 주체의 방식으로 환상과 불안의 가시성을 제안한다. 상징적 질서로 대변되는 대타자와 주체가 모두 균열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 앞에서 주체는 “환상의 도움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일관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도 일관적이고 적대가 없다”고 기대한다. 박완서 소설은 이런 사회와의 길항이나 때로 대타자로 존재하는 이웃의 집단과 주체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일상의 구어체로 표현하는 ‘수다의 말/이야기’¹⁰⁾의 형태를 지닌다. 본고는 대중 매체의 보도, 혹은 비윤리적으로 낙인찍힌 대상에 대한 의도된 루머나 증언 여성들의 험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어 소설과 결합하는 소문의 서사를 분석할 예정이다. 박완서 소설에서는 소문의 서사가 소설을 통어하는 현상이 빈번히 포착되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문을 (재)생산하는 주체들은 상징계의 균열 요소를 도착적으로 행함으로써 대타자의 균열을 은폐하거나 스스로를 소문의 대상으로 재구성한다. 주체는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판타지적 소문을 생성하여 평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소문을 통한 불안의 가시화는 주체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져온다. 그러나 살레츨은 불안이 주체를 단순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불안에는 주체를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따라서 이는 주체가 자신의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로써 신경쇠약이나 트라우마를 유발할 만한 사건을 맞닥뜨리는 경우 무기력해지거나 놀라는 정도를 줄여 줄 수 있다”¹¹⁾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의 긍정성은 소문의 배경을 의심하고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길항 과정에서 사회적 균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불화의 건강성에 대해 재사유하게 한다.

10)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135면.

11) 레나타 살레츨, 앞의 책, 100-101면.

이렇듯 본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서 소문서사가 생성되는 과정에 드러나는 주체의 불안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소문서사에 의해 반영되는 사회 메커니즘과 인물의 수행적 특징 및 길항관계를 검토하면서 박완서 소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소문의 생성과 도착적 불안

소문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연루된 관계들을 모두 지배한다. 소문에 동참하는 이들은 소문의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소문의 청자이자 유포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소문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하나의 주어진 상징적 체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 살펴볼 소문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소문의 시의성이다. 소문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나타나는 그룹 내에서 유통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문이 되는 데 이때 소문은 일시적인 “집단적 사건으로서 인구에 회자되는 순간에 존재하는 인공물”이 된다.¹²⁾

박완서 소설 『상(賞)』(1977)과 『무중(霧中)』(1982)에서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당대 보도 매체의 특징과 이를 수용하면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불안이 소문으로 도착화된다.

“소문의 발단은 바로 나왔으니까.”

“자네가? 자네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선생님을 그렇게 모함했나?”

“설마 내가 선생님을 모함했을 리가 있나. …(중략)… 난 주

12) 한스 J. 노이바우어, 앞의 책, 15-16면.

간지 기잡세. 자네 우리 주간지 봤나?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해서 탐방하는 난이 작년부터 새로 생겼지. 주간지도 명랑사회 실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긴. 우리 지면으론 상당히 의욕적인 기획이고 내가 그 담당이지. 제1회 탐방기사가 바로 감초 선생 이야기였고, 기사 성격상 그의 감초적 기질을 이웃돕기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미화 보도할 수밖에 없었네...”¹³⁾

“나는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미담 담당 기자일 뿐일세. 그뒤의 아름답지 못한 소문에 대해선 나 역시 자네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청중에 지나지 않아. 상금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안 것조차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자네나 내가 지금 자책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순진한 탓이야. 덜떨어진 탓이야.(202면) (밑줄 필자)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유신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기획된 ‘명랑사회 구현’의 일부이다. 당시 파시즘적인 ‘명랑’의 개념은 정신개조 프로그램으로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¹⁴⁾ 일상의 자연스러운 감정구조를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된 “명랑”의 감각은 “전근대적인 후한 인심이요, 인정”인 감초 선생의 습속을 근대적인 미담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공감하던 감초 선생의 일생이 “조약돌 선생 기리기 오백만원 타기 이웃돕기상”의 오백만 원으로 환산되면서 근대적 보상의 논리로 확산된다. 관변적인 잡지에 의한 미담과 명랑 사회 구현을 위한 자본주의적 기업마케팅의 주인공이 된 감초 선생은 이제 상금으로 ‘자선’을 실천하려는 구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선의 근대성을 기대한 대중은 오십만 원으로 절감된 상금으로 인해 개인의 선

13) 박완서, 『상(賞)』,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201면. 이하 동일 책의 경우 면수만 표시함.

14) 권두현, 『전후 회곡의 명랑과 우울』,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29면.

의는 생략한 채 그 결과만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상(賞)』의 경우 소문의 시발점을 과감히 드러내는 서사의 전개가 신선하지만 이는 중심이 되는 소문서사의 전제일 뿐이다. “신문사에 가서 모금한 걸 전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광만”을 위해 경쟁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나서며 “반면 왜 불우이웃은 도와줘야 하나, 왜 불우이웃은 도와줘도 도와줘도 끊임없이 생기나”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 『낙토(樂土)의 아이들』(1978)과 마찬가지로 『상(賞)』의 ‘불우이웃’들은 선행자의 의도에는 무관심한 채 배당 여부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웃돕기 상금이 부족한 것에 분노한다.

소문의 이야기는 그 자체 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보고한다. 제3자에 대한 비웃음이 그렇듯이 결함 또는 비리에 관한 이야기 또한 사회적 긴장을 현실화시킨다. 관변적인 매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성되었던 1차 소문은 그 결과에 의해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2차 소문으로 재생산된다. 감초 선생의 인심의 대상자였던 서술자나 미담의 발굴자인 ‘그’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무관심했던 결과가 초래한 감초 선생의 죽음 앞에 불안을 느낀다. 이제 그들이 “무책임한 청중”임을 자처한다는 점은 3차 소문의 빌미이자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호흡을 단절하여 자결한 감초 선생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선행의 단절과 환유되기에 그들의 방관은 죄책감을 더욱 자극한다. 그러나 감초 선생이 인식적 타살을 당했음을 인정하던 그들은 그가 자연사할 나이가 되었음을 상기하고 안도한다. 또한 소문을 타하던 사모님을 망령의 노년으로 몰아감으로써 그들은 죄의식의 불안을 도착적으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보도 매체의 사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배제하고 그것을 행위로 실행하면서 타자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들은 소문의 책임을 전가해 가면서 집단 속으로 침잠해 버린다.

『무중(霧中)』의 인물들은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서로의 불안을 제거하려 시도하지만 오히려 판타지의 균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새록새록 밝혀지는 사실이 신문 텔레비를 통해 쏟아져들어오는 걸 어떻게 모른 척 해요.”

“하긴 그래요. 글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이 미국이고, 제일 싫어하는 외국은 일본이란 게 밝혀졌단 소리를 듣고부턴 우리 옆집의 일본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던 게 단박 뜨악해지더라니까요.”¹⁵⁾

“아니 그까짓 살인사건 안 일어나는 날 있나 뭐, 그거 말고 십대의 성(性)경험이 사십 퍼센트나 되는 걸로 밝혀졌단 뉴스 말예요”

“사십 퍼센트나? 난 삼십 퍼센트로 들었는데……”

“아네요, 사십 퍼센트가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래요, 사십 퍼센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애긴 줄 알았는데……”

“아유, 이렇게들 못 믿으시긴. 사십 퍼센트고 우리나라인 게 틀림이 없다니까요. 내 코앞에 닥친 일인데 내가 그걸 비면하게 들었겠어요?”

“코앞에 닥쳤다니요?”

“우리 큰애가 올해 아홉 살이니까요. 십대가 코앞 아네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중략)… “아유, 발전이면 어떻게 후퇴면 어째서들 싸워요? 가만히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시시각각 변하긴 그거나 그거지. 그보다는 우리 아홉 살짜리가 큰일이네. 성교육할 시기까지 이미 놓쳤으니 이를 어쩐다지?”(317면)

15) 박완서, 『무중(霧中)』,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13, 314면.

전쟁을 비롯한 외부 환경에 의한 불안은 대응 기제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에서 현대인의 불안은 공포의 대상이 점차 내부로 전이되면서 근본적인 불안이 소문의 서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객관성을 가장한 과다 정보의 유입은 대중의 기존 상식과 마찰을 빚으면서 당시의 혼란상으로 묘사된다. “하루 석 잔 이상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커피와 “된장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대적인 지식 정보의 전달은 이제까지의 습속이 전근대적이라는 비교의 감성을 유발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정보가 일상을 압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개인에게 노출된 근대적 미디어의 정보는 그 습득과 실천에서 도태됨을 두려워하는 현대인 특유의 불안을 내장한다. 이를 조장하는 사회 메커니즘은 사건 자체보다 이를 전달하는 미디어 속 전문가의 언급을 맹신하게 하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 선택의 자유를 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막막한 혼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 사는 컷속”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려는 노력”에 대한 존경은 그러나 아직 십대가 되지 못한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걱정까지 선취하게 한다. “십대의 성(性)경험”에 대한 충격으로 예문 속 인물들은 수치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의 기억을 복원하면서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들은 매체의 인용을 반복하면서 불완전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간다. 정보의 요구에 맞춰 타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불안의 내용을 선취하면서까지 그들은 불안을 제거하려 한다. 심지어 주체에게 초자아로 자리하는 미디어는 과도한 조언과 금지로 죄책감을 양산한다.

‘맨션 아파트’라는 지상의 목표에 도달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체의 균열을 직시하는 서술자에 의해 그들은 “사람마다 죽자꾸나 쫓고 쫓기고 있다”는 평균율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80년대 미디어 정치 전략은 “과다한 정보의 이데올로기로 불안을 조성하고 전염시키며 서로 공유하는 과

정에서 끊임없이 소문을 재생산하면서 증폭된다. 정보의 부분성은 불안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장악하고 우려를 현실로¹⁶⁾ 만들어버리는 권력의 책략에 기인한다.¹⁷⁾ 1970년대부터 80년대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에 의한 사회불안의 정서는 당대의 망탈리테로 작용하여 미시적인 일상의 습속까지 규정해 간다. 박완서는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근대적인 정보습득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역으로 초차아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의 합리화를 선명하게 만드는 감정정치를 견제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제도적 채널의 전략에 복무하던 주체의 또 다른 도착적 양상은 스스로를 소문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리고 전달 내용이 중요하면 할수록 소문은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만일 영에 가깝게 되면 소문은 생겨날 수가 없게 된다. 무엇보다 소문은 확산되는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생겨나는 집단물이다. 시의성을 반영하고 전이와 환유의 특성으로 작업하면서 소문은 메타포를 구성하고 이를 집약시킨다.¹⁸⁾ 『부처님 근처』(1973)와 『쥬디 할머니』(1981)에서는 소문에 공명하는 (사회집단인) 대타자의 욕망 여부에 따라 상반된 주체의 불안 양

16)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6, 164면.

17) 1980년대 신군부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전략 중 하나는 저항하는 사회 정치적 세력들의 확고한 대응전략을 무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80년대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은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5.18 광주항쟁을 불순분자들의 폭력적 선동에 의한 질서문란행위로 호도하며 국가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해 갔다. 하상복의 견해를 참조한다면, 정권의 조직적인 불안감 조성은 정치사회적 안정의 심리를 극대화하는 반작용 효과를 견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상복,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 민주화 그리고 정치커뮤니케이션』, 『시민사회와 NGO』 제6권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5, 264-267면 참조.

18) 한스 J. 노이바우어, 앞의 책, 282-284면.

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길 시켰다. 실상은 말야, 6·25때 말야, 우리 아버진 말야, 우리 오빠 말야, 오래 묵은 체증을 토하듯이 이야길 시켰다. 그러나 아무도 내 비밀을 재미있어하지도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았다.

듣는 사람이 없는 곡성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상주도 문상객이 있어야 곡을 할게 아닌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관대해졌다는 건 그만큼 무관심해졌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¹⁹⁾

『부처님 근처』에서 1950년대 오빠와 아버지의 불온한 죽음은 살아남은 자가 반공의 시대를 가로지르기 위해 그 존재를 거부한 전형적인 시대 비극이 된다. 인용문은 “행방불명”이라는 은유적인 식인의 기표가 20년의 시간을 거쳐 다산의 몸의 언어와 소문의 말의 언어로 배출되려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불온과 얽힌 가족의 죽음은 은폐하고 삶의 재생을 위해 다산을 감행하던 서술자의 행위가 몸의 언어라면, 사건의 발화와 소설화는 소문의 언어가 된다. 박완서는 생존을 위해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이자 발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금기시 되던 불온의 상황을 체증의 증상으로 발현한데 반해 그 봉인해제는 소설이라는 말의 언어로 전환한다.

인용문의 사건은 사실과 조작 여부를 떠나 50년대 대부분의 가정에서 있음직한 평준화된 소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소문의 식인성은 동질적인 체험이 되어 표면화를 금지하는 공공의 영역이 된다. 그런데 아직 반공 이데올로기가 성행하는 1970년대, 서술자는 금단의 무의식을 침해회한다. ‘아무도 재미있어하지도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는’ 소문은 이미 소문의 상황에 동화된 대타자의 전략이기에 ‘관대’

19) 박완서, 『부처님 근처』,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113면.

나 ‘무관심’으로 대체된 표현은 또 다른 공모에 불과하다. 누구나 알면서 기꺼이 눈감은 혈육 부정의 소문은 가족에서 공동체로 확대된 공모의 확인 과정인 것이다.²⁰⁾

불온에서 먹고 사는 경제 논리로 전략을 바꾼 대타자의 시대 논리, 그 완벽한 공모 앞에서 서술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안은 결여의 결여가 된다.²¹⁾ 대타자의 치밀한 공모가 유발하는 체증 앞에서 불안의 주체는 그 자신이 균열이 되기 위해 금기를 깨고 잠재된 소문을 활자화한다. 하지만 서술자의 도착적 시도는 “시대의 비위를 너무 의식한 탓”과 “피부적인 촉감으로 밀착” 되어 있는 금기의 재확인으로 실패한다. 전달 내용의 가치가 영으로 전략한 서술자의 소문은 소멸되는 것이다. 여전히 소문의 시대 공감이 되지 못하는 서술자의 고통은 남겨진 혈육인 어머니의 온전한 상상적 죽음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몫이 된다.

그에 반해 『주디 할머니』의 초점 인물은 『부처님 근처』의 불안한 주체 양상에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 주박사가 대뜸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펴 보이면서 당신 이거지? 그러더라고 뭐예요? 그 일이 있고부터 4호가 8호

20) 고든 엘포트가 규정한 소문의 세 가지 규칙에 따르면 소문은 평준화, 첨예화, 동화로 구분된다. 소문의 평준화는 세부 정보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그 특수성이 친편일률화되는 것이다. 첨예화는 전달 내용이 구체적인,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소식으로 극단화되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서술 상황에 적용되어 화자와 청자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화자나 청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꿰맞추게 된다.(한스 J. 노이마우어, 앞의 책, 281면)

21) 라캉은 〈세미나 10: 불안〉에서 결여의 결여와 분리의 개념을 대별한다. 타자가 어떤 불완전함이나 부정확함, 결핍의 표지를 보여주어야 분리가 이루어지고 주체가 \$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여가 채워지면 주체는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결여가 결여되어 욕망하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주체는 상상적인 것에 의해 압도되어 주체화될 수 없다.(브루스 핑크, 이상민 옮김,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 b, 2010, 111면 참조)

한테 찢찢매는 건 말도 못 해요. 제발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걸을 하더래요. 그렇지만 지켜질 비밀이 따로 있지, 어엿한 조강지처하고 세컨드 비밀 지켜줄 일간이는 또 어디 있대요? 이를테면 우리의 공동의 적인데. 한 입 건너 두 입, 쭈군쭈군, 축살축살 지금은 우리 아파트에 그 여자 아는 사람치고 그 일 모르는 사람이 없대구요.”²²⁾

그러나 할머니의 생활은 조금씩 속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정한 생활 밖의 어떤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었다.(190)

할머니의 귀 속에선 여자들의 수많은 입이 쑥덕거리고 깔깔 거리는 소리가 한 덩어리의 날카로운 아우성이 되어 점점 기승스러워지고 있을 뿐이었다.(198)

아파트라는 사적인 공간성이 강조된 장소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불륜은 의식적인 단결을 유도하는 기폭제이다. 인용문에서는 불분명한 기준의 도덕률로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목표가 된 소문이 공유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소문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성을 가지며 동시에 공공성으로 대표된다. 조강지처라는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은 소문을 발화하고 청취하는 행위 안에서 ‘공동’으로 거듭난다. 소문의 비밀은 다수이면서도 하나가 되고자 하는 대중의 패러독스, 즉 부분의 총합이면서도 그 이상이고자 하는 모순이다.²³⁾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적으로 규정된 4호 여성의 사례 이후 주디 할머니가 끌려가는 일정한 생활 밖의 어떤 지점은 윤리적인 경계 바깥지점이다. 조강지처로서 소문 발화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들은 남편을 향한 불안과 이유 없는 불결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22) 박완서, 『주디 할머니』,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13, 188-189면.

23) 한스 J. 노이바우어, 앞의 책, 59면.

소문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불륜을 지칭하는 인용문의 소문서사에서 개인사의 세부 정보는 누락된 채 평준화된다. 소문은 ‘세컨드’라는 현실성과 결론만을 첨예화하며 그러한 정보의 노출 역시 우연성에서 비롯된다. 『부처님 근처』의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와 다르게 『쥬디 할머니』의 대타자는 군중의 비균질적인 윤리적 잣대에서 보듯 이미 균열되어 있다. 『쥬디 할머니』에서 모호한 대타자의 윤리적인 욕망 앞에 불안한 주체는 완벽한 상상적 가정을 구축하면서 스스로 소문의 대상이 된다. 쥬디 할머니는 이민 간 자녀들과 손주들 사이에서 유복한 노년의 이상적인 가정을 전시하며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우연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징질서의 오점이 되어 상징체계를 더 견고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쥬디 할머니』의 주체가 도착적인 이유는 윤리의 낙인을 교감하는 대타자의 소문이 있기도 전에 집단을 이동해 가며 자신의 소문을 무한 복제하기 때문이다. 최상의 노년이라는 주이상스(Jouissance)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자신과 대면할 수 없는 쥬디 할머니는 상상적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미끄러진다.

3. 소문의 공유와 불안의 가시화

소문이 발생하여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매체 내부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때 소문의 추동력은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감정적인 이해관계에서 형성된다. 소문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해관계를 통해 박완서는 불안을 가시화한다. “사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현실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방식”²⁴⁾으로 존재하리라는 의심은 불안을 가시화하면서

소문서사를 형성하는 집단의 특성을 드러낸다.

소문을 공유하는 집단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계급적 배타성이다. 『주말농장』(1973)에서 인물들은 부의 과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계급적으로 열등한 타자를 소문의 서사로 구성해낸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때로는 소문이 날까봐, 때로는 소문이 나기 위해 그녀들은 그녀들의 생활의 알맹이를 뿔아다가 열심히 외화치레를 해서 동실 애드벌룬처럼 띄웠다. …그녀들은 또 그녀들의 패거리가 아닌 제삼자의 소문을 그녀들의 전화 소식 통으로 끌어들여 갈기갈기 짓씹어놓기를 즐겼다.²⁴⁾

시인이니 소설가니 하는 가난뱅이들이 싸구려 땅을 사서 백평 오십 평씩 나눠가지고 기분을 내는 모양이야. 애개개, 고결가지고 거창하게 뭐 농장, 웃기네 웃겨. 아마 그런 죽속은 그런 죽속대로의 허영이 있는 모양이지. 그야 말째주로 밥 벌어먹는 양반님네들이 말이 모자라 이름 못 붙이겠어. 주말 농장, 하영튼 작명치곤 걸작이야.(153면)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전화가 주로 군부대와 같은 특수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활용되었음을 상기할 때, “전화가 거기 있으므로 수다를 떨었노라”고 서술하는 소설의 도입부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다. 대단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신변의 사적 용도로 전화를 사용하는 『주말농장』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계층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화라는 미디어는 “귀와 입을 확장시키는 미디어를 넘어 신체의 일부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 전화와 인간의 경계가 사라”짐을 체험하게 한다. 이웃의 소문과 무사안일한 일상을

24) 레나타 살레츨, 앞의 책, 112-113면.

25) 박완서, 『주말농장』,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152면.

저작(咀嚼)하고픈 인물들의 전화 통화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전화 속에 연결된 동일한 자아들의 거울상이기도 하다. 화숙 일행에게 전화 속 소문은 씹고 맛보는 저작의 행위 속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 “꼭 가려운 곳이 분명치 않은 가려움증 같아서 미칠 지경”인 불안을 쾌락적 행위의 포만감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²⁶⁾

가난뱅이로 지칭되는 문학인들이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들의 “정서교육만을 위한” 주말농장을 가졌다는 소문에 화숙의 일행은 분노한다. “시인인 주제에” 생활의 여유와 가치를 선취한 그들을 향해 화숙 일행이 대응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비교이다. 소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한다. 화숙 일행은 전화 통화 속에서 시인과 소설가들을 계층적으로 강등하고 주말 농장에 부여되는 가치를 ‘단돈 이십오만 원’으로 평가절하한다. 전화 속의 소문을 공유하며 “‘단돈’을 붙여서 부를 때의 통쾌감, 부르주아가 된 기분”의 향락은 그들의 계층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풍문에 의해 전달된 시인의 농장은 “이만오천원짜리 농장쯤”으로 추측되면서 화숙의 일행이 “진심으로 모멸”할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계층적인 타자를 양산하는 그들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밤톨만한 마가린과 빵조각을 먹으며 “누추한 알맹이를 누구에게 져지 엇빌 것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이고, “입가심으로 열무김치를 두어 줄기 손가락으로 집어먹을 때는 도둑질이라도 하듯” 침착성을 잃지만 그마저도 “냄새가 가실 때까지 공들여서 양치질”을 하는 그들은 많은 이웃 속에서도 “절망적인 단절감”과 “뭇 눈과 귀를 의식해야 하는 괴로움”을 갖는다. 『주말농장』처럼 증상층에 위치한 인물들

26) 이승하, 이충만,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전화를 통한 일상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51면. 연구자들은 “문학작품에서 전화는 ‘주체의 불안’이나 ‘소통의 부재’, 또는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454면)

은 대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다가 신분이동에 성공한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계층의 상승과 추락이 빈번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²⁷⁾

『서울사람들』(1984)에는 중산층과 중상층 인물들이 신분상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한 정체성이 잘 포착되어 있다. 혜진은 중상층 친정을 두고도 중산층 아파트에 겨우 입성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행감과 열등감을 겪는다. 그녀는 신분의 사다리를 위해 자녀의 결혼을 이용하는 부모의 속물성을 비판하면서도 자신 역시 동생 남편의 덕을 보려는 이중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주말농장』에서 중상층 인물들이 신분유지를 위해 소문의 타자를 만들어내듯 『서울사람들』에서는 상류층의 폐쇄적인 결혼관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통한 중상층의 계층상승이 실패하면서 계층 이동의 폐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산층을 거북이걸음으로, 상류층을 토끼 걸음으로 비유하는 혜진은 그 둘의 차이가 타고난 운명이나 공정한 실력 차가 아니라는 점에 의심을 품는다. “토끼 걸음에는 반드시 속임수와 비리가 감춰져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굳게 믿고” 있는 혜진의 태도를 통해 작가는 그들의 불안 뒤에 숨겨진 불공정한 사회 논리를 추적한다.

신식 양반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의외로 신식 양반 자신도, 윤 선생 같은 고급 중매쟁이만도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장사꾼들이었다. … “요샌 다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한데 혼자서만 안 그럴 용기가 어머니 같은 보통 여자에게 있을 리가 없었다.²⁸⁾

27) 박완서 소설을 탐구하다 보면 대략적인 인물의 계층 분화가 드러난다. 철거민, 식모, 낙후 지역의 하류층, 연립 주택이나 서민 아파트에 살아가는 중산층, 60-70년대 경제 불안 시기에 벼락부자가 되었거나 중동 붐을 타고 외화벌이에 성공하여 부를 축적한 중상층, 그리고 그들과 다른 세계를 살아가며 명문가로 불리는 상류층이 있다.

“아니에요. 그 점잖은 맥에서 내놓고 그런 물질적인 요구를 할 리가 있나요. 다만 세상 소문이 그렇단 얘기죠. 그야말로 아 니 땀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소문이 한번 짝 들면 내 자식은 어디가 못나서 남 다 받는 대접을 못 받나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311면)

소문은 그 자체로 매체의 성격을 띠며 간접화법으로 인용된다. 소문서사의 시작과 주체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요새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인용에 인용을 더하며 공식적인 반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작가는 결혼의 양식을 소비지향적으로 재편한 알 수 없는 “다들”의 주체가 혼수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임을 지적한다. “현대의 결혼 법도”는 구습의 간결한 전통을 무시하고 “이 도시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장사꾼이 쥐고 있었고, 그 권한은 절대적”이 다. 주체에게 강력한 불안요인 중 하나는 “타인과 사회의 상징적 관계망”에서 대타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선택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주체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²⁹⁾ 『서울사람들』에서 합리적인 방식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최상의 부모, 최상의 배우자’가 되라는 소문의 압박이다. 소문이 요구하는 진정한 최고는 지속적인 최상의 질, 최고의 선택뿐이다. 소문의 서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유도하면서 개인의 선택적 자유를 표면화하지만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도 짚어지지 않고 다시 주체에게 돌아온다.

결혼의 형식에 관련된 소문은 젠더성과 결합하여 신부측에 더욱 강한 실천을 요구한다. “결혼에 있어서 여자 쪽에서 남자 쪽을 서운하게 해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소문은 혼수감의 양과 질에 비

28) 박완서, 『서울사람들』, 박완서 소설전집 18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309면.

29) 레나타 살레츨, 앞의 책, 125-126면.

례해 결혼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수사를 내포한다. 상류층과 중매에 실패하여 신분상승의 기회를 잃고 비슷한 계층과 안정된 결혼을 시도하면서 계층의 수준 유지를 부추기는 대타자의 언명은 과도한 소비 뒤에도 완벽할 수 없는 주체의 죄책감을 유발한다. 벼락부자의 티를 감추기 위해 습관과 구습까지 돈으로 환치하는 아이러니함, 전문화되어 가는 중매인들로 인해 오히려 계층성이 공고히 되고 있는 현실, 혼수품 시장의 한계 없는 확대 등 결혼을 둘러싼 소문 속에 정작 혼인의 주체는 “처음에 주체성을 포기”했음을 작가는 날카롭게 가시화하고 있다.

소문서사의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을 표면화하는 박완서의 탐구는 인물의 시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고에서 고찰할 소문서사와 관련된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독자와 초점인물 사이에 위치하는 중개적 서술자의 존재이다.³⁰⁾ 박완서 소설의 서술자나 관찰적 인물은 소문 생성 집단 내부에 위치하나 그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둔다. 작가의 윤리관이 투영된 서술자는 소문의 생성과 공유 과정에서 과도한 윤리적 오류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소문의 발생 당시 대상에 대한 자기 철학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에 집단의 일원으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들 역시 암묵적인 동조자가 된다는 것이다. 작가 자신과 밀착된 서술자나 인물을 설정하면서도 박완서는 소문의 집단성, 소문서사를 대하는 군

30) 슈탄젤은 작품과 독자 사이를 연결하는 서사적 과정의 중개성을 간접성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는 서술자 및 이 서술자의 여러 가지 등장 방식을 통해 중개성이 구체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표현형식과 내용의 교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이 잘 입증될 수 있는 서술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주석적 서술상황은 서술자가 소설의 허구적 세계와 작가 및 독자의 현실 사이의 경계선상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일인칭 서술상황은 서술자가 소설의 등장 인물들의 세계에 속한다. 인물시각적 서술상황은 서술자가 인물들 뒤에 물러나 있기에 묘사되는 사건이 독자의 상상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직접적 환상이 통용된다. (프란츠 슈탄젤, 안삼환 옮김,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92, 31-34면)

중의 동질성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서술자를 구성하는 자기 성찰적인 면모를 보인다. 『어떤 야만』(1976)이나 『마흔아홉 살』(2003)에서는 소문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상상적 판타지의 대상이 되거나 비윤리적인 낙인이 찍히는데 이들과 소문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집단 사이에 중개적 인물이 위치하게 된다. 작가는 소문을 공유하면서도 소문을 의심하는 서술자의 미묘한 거리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소문서사의 파장과 긴장력을 재현한다.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철이네에 대한 골목 안 소문을 종합해서 들려줬다.

“여보, 철이네가 왜 별안간 화장실 공사를 한 줄 아슈?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별안간 왜 그렇게 시큰둥 거만을 떠는지 모르시죠? 글썄 그 집이 이제 곧 살판이 난대나봐요. 철이 아빠 육촌형님이 일본 사는데 이제 곧 다니러 나온다지 뭐유. 일본서 크게 돈을 벌어서 이제 내 나라에도 좀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뭐 마땅한 사업이 없나 사찰 겸 온다는데 그 사람 아주 사람이 됐습디다. 그렇게 큰 부잔데도 호텔에 묵는 것보다 친척집에서 한국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맛보고 싶단대요. 그런데 친동기간은 다 이북에 있고 남한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철이네라니 생각만 해봐요. 철이넨 큰 수가 났지 뭐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참 철이네야말로 금시발복을 하려나봐요. 이 더러운 골목도 곧 면하게 되겠쥬. 이번에 변소만 고친 게 아니라 도배하고 칠하고 마루에 양탄자도 깔고 아주 새 집을 만들었습디다. 그러고도 매일매일 뭘 그렇게 사들이는지. 여보, 당신네 일가붙이 중엔 누구 외국 나가 성공한 사람도 좀 없어요? 소식이 끊긴 사람이라도 한 사람쯤 없어요? 아유 시시해.” (밑줄 필자)³¹⁾

박완서의 회고적 일인칭 서술시점은 그간 체험적 자아와 서술적

31) 박완서, 『어떤 야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51면.

자아의 낙차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 서술적 거리가 경험 당시에는 몰랐던 자신의 내적 삶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거리를 만듦으로써, 회상을 통한 정체성 확인의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³²⁾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어떤 야만』에서는 체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시간적 거리가 동일하고 무엇보다 일인칭 서술자와 초점인물이 분화되어 집중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이 변별된다.³³⁾ 물론 이 소설은 ‘인간의 야만성’이라는 부분을 성찰하면서 일인칭 서술자의 철학적 심연을 노정하고 있지만 소문의 집단성과 개인의 성찰, 궤변으로 알레고리화되는 야만과 고상함의 대비가 서사 진행의 동력이 된다.

『어떤 야만』의 도입부에서 서술자는 ‘고결’, ‘청백’, ‘허공’, “우리네와는 사뭇 족속이 다른 특체의 고상한 인간”으로 시인을 정의하면서도 이어서 그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을 업으로 삼는 사람의 얼굴”로 규정해 통념적인 고상함을 재고하게 한다. 그런 무용함을 고상함에 등치하면서 서술자는 “착실한 월급쟁이”인 남편, 관변적인 가족계획에 충실하여 둘만 낳은 아이, 살림 장만에 몰두한 “모범 주부”의 규격품인 우리 동네를 ‘속물’로 지칭한다. 작가가 도입부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위의 논리는 소문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에 참조가 된다.

서술자에게 “천격스럽고, 수다스럽고, 인색”하여 골목색이 가장 진하다고 혐오를 당하던 철이 엄마가 수세식 화장실 개조로 동네를 야만적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일상의 야만’이라는 개념은 속물로 전치된다. 인용문에서 아내가 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매우 간단

32) 황도경, 앞의 책, 145면.

33) 주네트는 보는 주체인 인식의 주체와 이야기하는 서술의 주체를 분리한다. 특정 대상을 지각하여 그것을 인식 또는 지향하는 행위를 초점화라 할 때, 초점화의 주체가 지각하는 대상은 초점화 대상이 된다.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문예출판사, 1992)

하지만 소문을 인용하는 틈 사이에 존재하는 첨언들은 속물적인 골목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투사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애를 강조하는 철이네 친척을 된 사람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소문의 핵심은 철이네를 향한 부러움으로 집약된다. 소문의 인용자들은 “살판”, “큰 수”, “금시발복”과 같이 ‘벼락부자’가 되어 “이 더러운 골목을 면하게”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식이 끊긴 인척조차 훑어도 기회의 가망성이 없다. 대신 그들은 철이네가, 일등 손님이 된 애완건을 다루는 일본어를 모방하며 불운을 자위한다.

사실 『어떤 야만』의 서술 자아는 일인칭이면서도 주석적 서술자의 특성을 보인다. 소설에서 초점인물인 철이네에 대한 소식은 주로 서술자의 아내를 통해 요약적으로 보고되고 소문에 대한 주석적 판단은 서술자가 일임한다. 따라서 『어떤 야만』은 소문서사를 생성하는 집단을 대리하는 아내의 주관적인 도덕 평가와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소문의 향방에 따라 소문 집단과 대상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독자의 공감과 신뢰를 유도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병행된다.

서술의 표층에서 서술자는 소문의 집단인 속물과 고상한 시인으로 대표되는 세계의 경계에서 자신을 구분 짓고자 하지만 심층적으로 두 세계는 동급임을 확인하고 서술자 자신도 소시민의 부분임을 깨닫는다. 규격화된 일상의 유지 속에서도 더러운 골목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집단적인 불안은 이제 고상한 교양에 실패하고 그 분풀이로 남겨진 개를 확대하는 철이네 엄마를 야만으로 치칭한다. 그러나 욕과 똥,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가학까지 포함하는 그 세계는 일상을 유지하는 건강한 야만적 소문의 세계로 탈바꿈한다.

『어떤 야만』의 일인칭 서술자가 소문의 생성집단과 대상 사이에서 전자에 가까이 위치한다면 『마흔아홉 살』의 전지적 서술자는 후

자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어떤 야만』에서 일인칭 서술자는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소문 대상에 대해 추측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보이지만 『마흔아홉 살』의 전지적 서술자는 관찰적 인물을 설정하여 소문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독자의 판단을 이끌어낸다. 다음과 같이 『마흔아홉 살』에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권력욕을 폭로하는 과정이 소문서사로 드러난다.

—거기가 제일 뭐가 많이 끼잡아요. 뒤보고 나서 뒤처리를 잘하지 않은 노인들 거기를 깨끗이 해주려면 불려가면서 닦아야 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걸요.

조신한 목소리로 끼어든 건 동숙이었다. 아, 동숙이도 와 있었구나. 동숙이가 끼어들자 좌중이 갑자기 신중하고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유난히 오래 떡 주무르듯 했어요. 그렇게 성기를 주름주머니와 다름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만 성기가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시아버지의 팬티를 그렇게 엽기적으로 학대할 수 있냐 말예요.

—넌 그럼 그 두 가지 물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있지, 그럼. 카타리나에겐 분명 성적 욕구불만 아니면 왜곡된 성관계에서 오는 죄의식, 어쩌면 근친상간이나 유아기에 당한 성폭행이나, 그런 어두운 과거가 분명 있을 거야.

—또, 또 너 또 프로이트하고 엮어보려고 그러지? 누구 기죽일 일 있어?

웃음소리가 나면서 분위기가 풀어지려는 틈새로 동숙이가 끼어들었다.

—왜 이렇게 늦을까. 마중을 가 봐야 할까 봐요. 혼자 들고 오긴 무거울 텐데.³⁴⁾(밑줄 필자)

34) 박완서, 『마흔아홉 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7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87-88면.

『마흔아홉 살』은 소문의 주인공인 카타리나가 우연히 자신의 스캔들을 엿듣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회원들의 식사를 직접 사들고 온 카타리나의 행위와 상반되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맛있는 걸 저희들끼리만 휘딱 먹어치워버리려는 다급하고도 게걸스러운 식욕 같은 게 느껴”진다는 소문 공개의 상황은 타인의 식욕을 책임지려는 카타리나의 선의와 본능 같은 식욕으로 소문의 대상에 대한 강렬한 적의가 마찰을 일으키며 독자의 긴장을 유도한다.

『마흔아홉 살』의 스캔들이 소문의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보가 주는 파장이다. 노인 목욕 봉사단체의 회장인 카타리나는 정작 시아버지의 팬티를 집게로 집어 세탁기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을 회원에게 들킨다. 그리고 회원은 마침 카타리나가 부재한 장소에서 상황을 묘사하며 혐담을 시작한다. 두 번째 소문의 요소는 사회성이다. “소문이 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때 이 하나의 사건은 그것을 듣는 청자의 입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시작된다. “팬티만은 이런 취급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카타리나의 언급은 “엽기”와 “이중성”으로 귀결된다. 회원들은 상황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며 사건에 대한 정서를 교감한다. 세 번째의 요소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주제”라는 점이다. 봉사 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남자 노인의 목욕을 제안하고 회장이 되었으며 가장 민감한 성기를 기쁘게 도맡아 씻기던 카타리나였다. 타인의 알몸과 가족의 속옷이라는 대척점 앞에서 후자를 배척하는 카타리나의 태도는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마지막 소문의 구성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정보는 사건을 경험한 회원의 회고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체험이기에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험악하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다는 수식, “약 먹고 죽은 쥐나, 뭐 그런 끔찍한 걸 집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다, “그 서슬이 어찌

나 시퍼렇던지 그까짓 형겔 조각에서 쟁그렁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는 비유, “완전히 딴사람”이라는 가치판단까지, 사건을 회상하며 추가되는 감정들로 인해 이미 정보의 객관성은 상실해 간다.³⁵⁾ 이제 소문의 초점은 ‘그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는 권력욕과 남편 회사의 홍보를 위해 회장직을 이용한 위선자로 확정되는 루머의 확인이다.

인용문에서는 소문에 반발하는 동창 동숙이 등장한다. 격양된 회원들의 대화 속에서 “조신한 목소리”라는 구절과 연이어 갑작스럽게 드러난 인물의 목소리는 견잡을 수 없는 소문의 팽창을 저지한다. 구어체적으로 휩쓸려 나오던 소문에 대한 평가는 동숙의 등장으로 이성적인 대응처럼 반발되나 결국 추측에 불과한 소문 대상의 성적 정체성 폄훼로 이어질 뿐이다.

『마흔아홉 살』에서 주석적 서술자의 목소리는 소문의 공유를 목도하는 카타리나의 심리와 입장에만 철저히 할애되고 다시 사라진다. 이에 반해 소문이 전파되는 과정은 회원들의 대화만으로 진행되어 소문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소문을 공유하는 발화자들의 윤리적 모순을 독자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이끈다. 카타리나의 몸에 밴 교양과 그를 의식하는 태도, “회장으로서의 의무감”, 자신을 이해하는 동숙에 대한 민망함, 인신공격의 위악을 세태로 일 반화하는 관용 등 주석적 서술자는 카타리나를 소문의 발화자들보다 더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인물로 평가하도록 독자를 유도함으로써 그녀의 행위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주석적 서술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논평을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작가는 소문집단의 상황을 보충하고 심리적·윤리적으로 소문 대상과 가까운 인물을 설정하여 인물 간의

35) 소문의 구성요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니콜라스 디폰조, 박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55-57면을 참고할 것.

대화 속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마흔아홉 살』에서 동숙은 그런 위치의 인물로 주석적 서술자가 거리를 두었던 소문 생성 집단의 불안 원인을 설명한다. 순수한 봉사 단체가 교회의 인정을 받고 지원의 기미가 보이자 회원들 사이에 회장직을 향한 권력욕이 생긴다. 작가는 종교 단체에서조차 세속적 욕망을 향한 집착을 보이며 이를 위해 타인을 성적·윤리적 타자로 배척하는 모순을 가시화한다. 더불어 동숙은 대화 속에서 소문의 대상인 카타리나가 발언이자 변명을 직접 행하도록 유도한다. 동숙은 시아버지에 대한 카타리나의 증오가 고부 간의 갈등에서 기인하고 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지언정 카타리나의 봉사는 헌신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결국 작가는 카타리나의 행위는 개인의 인간성 문제가 아닌 “정해진 고정관념과 사실과의 상관관계”에서 빛을 마찰임을 시사한다. “모든 인간관계 속엔 위선이 불가피하게 개입”한다는 동숙의 발언은 대화 중인 카타리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소문의 발화 집단은 소문서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욕망을 감춘 채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지만 실은 봉사 자체에 대한 카타리나의 노력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위선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소문의 일상은 이렇게 도덕과 비도덕, 신념과 비루한 현실의 쟁투를 포괄하기에 작가는 그 안에서 가시화되는 주체의 불안에 주목한다.³⁶⁾

36) 노먼 프리드먼은 전지적 서술에서 구체화되는 감각이 반드시 이야기와 독자 사이의 방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더 포괄적인 사물의 판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체의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노먼 프리드먼, 『소설의 시점』, 김병욱 편, 최상규 옮김,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532면)

4. 결론

본 연구는 소문의 서사를 탐색하기 위해 ‘텍스트인 소문 - 발화자 이자 청취자인 주체/ 대상인 타자 - 수용 및 저항 정동의 공동체’의 세 층위를 설정하고 박완서 소설 속에서 이들이 서로 길항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문서사의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기획될 연구 방향 중 이번 연구는 소문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주체와 수용 집단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박완서 소설은 대중의 혼란을 유발하는 매체 보도, 혹은 도덕적 폄하를 위한 의도적 루머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이 소설과 결합하여 소문의 서사를 형성하는 일상을 재현한다.

박완서 소설의 소문서사는 집단의 기억과 심층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불안의 심리를 기저로 한다. 주체의 불안과 착종된 소문서사는 불안을 해방시키는 기능과 동시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양가성을 지닌다. 소문서사의 생성자인 주체는 환상을 통해 불안을 제거하거나 불안을 가시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허위의 전모를 성찰하게 한다.

1970년대 국민개조를 위한 감정의 기획,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던 1980년대 미디어 전략은 제도적 채널이 소문의 서사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주체의 일상에 편재함을 의미한다. 근대적 미디어의 대타향으로 일상에 정착된 관습이나 습속은 전근대성으로 규정된다. 이런 마찰 속에서 현대인들은 소문을 통한 정보의 습득과 집단의 실천 사이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 그 안에서 불안이 가중된다. 그에 비해 윤리의 영역에서 고착된 도덕관은 소문의 낙인을 최신의 정보로 교환하며 정신적 가학의 책임을 타자에게 전가한다. 타자에 대한 비윤리적인 소문을 재생산하거나 미디어의 권위에 기대어 불안을 제거하려는 주체의 도착적 행위는 소문을 통해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행적 특징으로 해석된다. 때로 불안의 주체는 소문에

공명하는 대타자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사하여 소문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연속된 반공주의는 근대화의 경제 논리로 위장되지만 대타자의 치밀한 공모 앞에 주체는 스스로를 균열로 전시하고 욕망의 도착적 시도는 이상적 자아와 비윤리적인 낙인 앞에서 끊임없이 전자를 향해 미끄러지는 주체의 불안을 양산한다. 대타자를 향한 죄책감으로 인해 상상적인 소문을 재구성하는 주체의 수행은 불안을 제거하려는 시도이지만 여전히 불안의 증폭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한편 소문의 서사 안에서 가시화되는 계층적 불안은 때로 소문의 공유 과정에서 그들의 계층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부조리함으로 서술되지만 박완서는 이에 대한 성찰의 여지를 남긴다. 계급적인 불안정성과 신분 상승의 제약, 권력을 향한 욕망, 상징적인 권위의 상실은 현실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며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구성은 소문서사 내부의 사회 불안과 소문의 대상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재고를 노정한다. 작가는 소문을 발생시키고 공유하는 집단과 그들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 사이에 작가 의식과 밀착된 중개적 인물을 설정한다. 주석적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문의 확장을 중재하고 소문 발생 집단과 거리감을 두면서 독자의 신뢰감을 높인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이들이 일상의 소문 집단을 일방적으로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소문의 대상과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박완서 소설의 소문서사에서 중개적인 인물들은 소문의 공유 과정에서 침묵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집단적·수사학적 창작의 일부가 된다. 소문을 생성·공유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받는 주체는 일상의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끊임없이 벗어나려 시도하는 아이러니함으로 소문의 서사를 추동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부처님 근처』,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 _____, 『주말농장』,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 _____, 『상(賞)』,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 _____, 『어떤 야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 _____, 『무중(霧中)』,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13.
- _____, 『쥬디 할머니』,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13.
- _____, 『서울사람들』, 박완서 소설전집 18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 _____, 『마흔아홉 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7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2. 논문

- 권두현, 『전후 희곡의 명량과 우울』,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29면.
-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67면.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 김연숙, 『사적 공간의 미시권력, 소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여이연, 2004, 239면.
- 김중구, 『구술문화와 저항담론으로서의 소문: 이기영의 『고향』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호, 한국현대문학회, 2004, 366-388면.
-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나혜석의 단편 「경희」를 중심으로』, 『사이』 제7호, 2009.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6, 164면.

이승하, 이충만,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전화를 통한 일상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51면, 454면.

하상복,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 민주화 그리고 정치커뮤니케이션」, 『시민사회와 NGO』 제6권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5, 264-267면.

3. 저서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100-101면, 135면, 145면.

김병욱 편, 최상규 옮김,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532면.

니콜라스 디폰조, 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55-57면.

레나타 살레츨, 박광효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2015, 23면, 112-113면, 125-126면.

브루스 핑크, 이상민 옮김,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 b, 2010, 111면.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문예출판사, 1992.

프란츠 슈탄젤, 안삼환 옮김,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92, 31-34면.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황승환 옮김, 『소문의 역사-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세종서적, 2001, 15-16면, 59면, 67면, 177면, 195면, 206면, 281-284면.

Nicholas DiFonzo and Praashant Bordia, “Rumor, Gossip and Urban Legends”, *Diogenes* 213, 2007, p.20.

<Abstract>

The Narration of Rumor and the Subject of
Anxiety
—Focusing on Park Wan-seo's novels—

Woo, Hyun-Ju

Novel by Wanseo Park makes the narration of rumors by combining the media herald instigating the public, intentional rumor for the moral belittlement, and rumors widely talked ab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ree layers: rumor which is the text, Subject who is the creator/ Other who is the victim, community of acceptance and resistance affect,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mor which is text and the creator.

The rumor is composed of the 'occurrence' including the incubation period, 'distribution' that all classes of society can be the subject, and exercise of violence that changes abruptly to the form of social 'behavior'. In this study, the aspect of anxiety combined with the people's unconscious psychology and the progress process of the rumor narration are considered in the stages of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the rumor. The rumor is a process of purification that emancipates the subject's anxiety and has the double-sidedness that intensifies the anxiety.

The rumor strategy by media which planed the emotion to renovate people in 1970s and made the confusion and fear in 1980s shows the



social mechanism seizes the subject's daily life by becoming the ideology. The convention of the subject remaining in the daily life is defined as the pre-modernism as colliding with the modern media plan. At this time, the subject which worries about falling behind collapses before the perfect pinch hitter or makes the imaginary rumor before being stigmatized unethically to conceal the past. The paraphilic performance of this subject is the attempt to remove the anxiety but it fails.

The narration of rumor shared inside the group is made because of the hierarchical instability, restriction of status rise, desire for the power, and anxiety caused by the loss of symbolic authority. Wanseo Park sets a mediation figure who conveys the author's consciousness between the group triggering and sharing the rumor and the target in which their desire is reflected. They raise the reader's credibility as mediating the spread of the unreasonable and unethical rumor and keeping their distance from the rumor-causing group. Like this, the subject of anxiety that makes and distributes the rumor narration of the Wanseo Park's novel structures the powerful meaning of the everyday life where the common sense and senselessness coexist.

Key words: The narration of rumor, anxiety, Subject, Wanseo Park,
The occurrence of rumor, The distribution of rumor

투 고 일 : 2018년 6월 7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